

## 인공와우 착용 성인의 농문화 경험

신 환희\* · 윤병천\*\*

### Experiencing Deaf Culture by Adults with A Cochlear Implant

Shin, Hwan-hee\* · Yoon, Byeong-chen\*\*

#### 요약

**[목적]** 이 연구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고 청인 문화에서 구어로 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농문화 경험 전·후의 삶을 알아보는 것으로 추후 인공와우 착용자의 언어, 교육 및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방법]** 연구 방법은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청인 문화에서 구어로 성장한 20대 초반 성인 4명을 선정하여 농문화 경험 전·후의 삶을 심층면담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문화 경험 이전의 삶은 인공와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고 신체적 활동의 제약과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다 들을 수 있다는 편견으로 불편하였다. 발음과 듣기 위주의 언어치료로 어휘력과 문장력이 부족하였으며, 구어를 할 때 문법에 맞게 표현해야 하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고, 듣는 정보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수동적이며 상대에게 맞추는 삶을 살았으며, 학교에서는 정보접근이 불가능하여 학습에 의욕이 전혀 없었다. 둘째, 농문화 경험 이후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농인과 교제를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어를 빠르게 배웠고, 수어로 대화하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대화 상대와 서로 대등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농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고 사고의 전환이 있었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였다. 또한 농인 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연구 참여자는 농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구어만은 한계가 있으며, 연구 참여자가 농인 공동체에서 농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제어 : 인공와우, 농문화, 수어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dults who grew up using spoken language in conjunction with a cochlear implant and received their surgeries. The study investigated their lives before and after exposure to Deaf culture. **[Method]** 4 adults in their early 20s who grew up using spoken language in conjunction with a cochlear implant were interviewed through in-depth. **[Results]** The following patterns were noted: First, prior to interaction with the Deaf community, A cochlear implant had more disadvantages than advantages. Participants felt restricted by their devices and uncomfortable with stereotypes that cochlear implants resulted in perfect hearing. Speech therapy that emphasized pronunciation and listening resulted in insufficient vocabulary and grammar skills. Participants struggled with the expectation of spoken language mastery, and lack of access to auditory information. This resulted in them being passive, an in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at school, which led to a lack of academic motivation. Second, positive changes were noted after experiencing Deaf culture. Participants interacted with other deaf people and learned sign language quickly. Because the sign language information was visual, they were able to have full access and communicate in ways they couldn't with hearing people. Empowered by seeing the lives of other deaf people, they gained confidence. Two out of the four participants received education regarding deaf rights and now advocate for the right to communication for deaf people.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felt limited when using only spoken language and that positive changes could be made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deaf community.

Key Words : Cochlear implant, Deaf culture, Sign language

\* 제1저자, 나사렛대학교 재활학과 박사과정 학생  
Dept. of Rehabilitation Services, Nazarene University  
\*\* 교신저자, 나사렛대학교 수어통역학과 교수(ybch5778@kornu.ac.kr)  
Professor, Dep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Nazarene University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문화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중요한 매개체는 언어이며 일반적으로 모어를 자신의 언어로 습득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부모는 대부분 청인이므로 청각장애인 자녀가 청각-음성 언어 체계인 모어를 습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통해 청력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여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인공와우 수술을 통하여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어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난청인들은 약 25~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1]. 이는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난청인들이 정상청력인 20dB에 근접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2005년부터 인공와우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부터 인공와우 수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 그리고 인공와우 수술을 조기에 하면 듣기 및 언어 발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2]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나이도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 특수교육실태 조사를 보면 만 5세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비율이 2011년 40.7%에서 2017년 77%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만1세 미만의 비율이 8.1%였다[3,4].

이렇게 인공와우 수술의 확대로 청각장애인들이 듣기와 말하기가 가능해지면서 일반 학급으로 입학하는 청각장애 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1].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청각장애 학생 중 75%가 2018년에는 76%가 일반학교에 재학하였으며[5,6], 2017년도에 일반학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한 학생의 비율은 56%였다[4]. 이를 통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청각장애인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구어를 사용하며 청인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들은 인공와우의 착용으로 음을 인지 할 수 있으며 음성언어에 대한 반응 및 이해력이 증가되어 학습과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7], 자아 존중감 증진[8] 및 사회적 역량 등에 긍정적인 변화[9]가 있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듣기 능력 및 말 산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10], 소음에 취약하여[11,12,13]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들이 인공와우의 단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공와우의 한계로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어도 구어와 수어를 함께 사용하며,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 모두를 수용하는 모습을 해외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볼 수 있었다[14,15,16,17,18].

국내에서도 해외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조사해 보았다. Park&Jeong(2011)의 연구를 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학술지의 65% 이상이 언어치료 및 청각 관련 연구였으며, 언어능력과 청각적인 인지 능력에 관한 연구가 전체 실험연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였으며 사례, 문헌, 질적 연구는 적었다.

2010년 이후 인공와우에 대한 연구들도 의료학적 언어치료학적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였으며, 과거에 비하여 질적 연구가 증가하였으나 학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7,9,20,21,22,23,24]. 질적 연구 중 인공와우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청각장애 청년의 장애 정체성에 관한 연구[25]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 생애사 연구[26]가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인공와우 착용 당사자에 대한 질적 연구는 매우 적으며, 인공와우 착용자와 농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더 구체적으로 인공와우 착용자의 농문화 경험 초기 상황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청인 문화에서 구어로 성장한 20대 초반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농문화 경험 전과 후의 삶에 대하여 심층면담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였고, 추후 인공와우 착용자를 위한 언어, 교육 및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고, 청인문화에서 구어로 성장한 20대 초반 성인의 농문화를 경험하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추후 인공와우 착용자를 위한 언어, 교육 및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농문화를 경험하기 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연구 참여자의 농문화를 경험한 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 용어 정리

1. 농문화: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모든 생활양식의 총칭 [27]으로, 농인 독자의 언어인 수어를 공유하며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관, 전통, 행동 양식 등을 의미한다[28].
2. 말: 구어와 같은 의미로 연구 참여자의 말맛을 살리기 위하여 심층면담 내용에서는 구어 대신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 모두 W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하였다. W대학은 연평균 60여명의 농인이 재학하고 있으며 농학생회가 구심점이 되어 농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농학생회에서는 농인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문화와 수어 등을 전수하고, 농인과 관련된 행사, 문화, 에티켓, 역사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 SNS에 게시하여 농인들에게는 정보 제공과 청인들에게는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깊고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농학생회 회원 중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만2세-7세에 오른쪽만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고, 구어로 대화가 가능한 20대 초반의 성인이다. 연구 참여자 가족은 모두 청인이며 가정환경도 청인 문화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중·고등학교를 일반학교에 재학하여 구어만 하다가 W대학교에 입학하여 농문화를 접하고 수어를 배워 현재는 수어와 구어가 모두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농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한 배경은 조기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구어만으로 성장한 성인의 농문화 경험 초기 상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몇 개만으로도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감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요인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연구 참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성별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농인사회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연구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연구 목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연구자가 은폐하거나 변조하였다.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

	A			B		C		D	
Age	21			21		22		23	
Education	Attending university			Attending university		Attending university		University graduation	
Age of receiving cochlear Implantation surgery	3(Rt)			2(Rt)		2(Rt)		7(Rt)	
Hearing before / after cochlear implantation (dB)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Lt	120	120	90	90	70	70	100	100
	Rt	120	30-40	90	30	98	56	120	35
Age of starting speech therapy	5-6			9		4		2	
Period of receiving speech therapy (year)	15-16 ( In progress)			6		17 ( In progress)		18 ( In progress)	
Age of first experiencing deaf culture	19			19		20		19	
Age of first learning sign language	19			19		20		11 (alpabet, number) /18(word) / 19 (formal education)	
Methods of learning sign language aside from interaction with other deaf people	Only interaction with other deaf peopl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department		Sign language class at university (15 week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department	
Family information	Hearing-people			Hearing-people		Hearing-people		Hearing-people	

**연구 참여자의 의사소통 특성**

연구 참여자 C와 D는 수어로만 대화하는 것을 A와 B는 수어와 구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연구 참여자 마다 듣기와 구어를 하는 정도가 다른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맞춰 구어를 하면 구어로 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구어만 하는 것보다 수어와 구어를 함께 하거나 수어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더 잘 된다고 하였다.

**구어**

연구 참여자 A는 개별 심층면담 첫 회기 때는 연구자가 수어와 구어를 함께 하였고, 두 번째 회기에는 한 시간 이상을 연구자가 구어로 진행하다가 A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어로 다시 설명해 주는 식으로 하였는데 구어만으로도 소통이 잘 되었다. 보통 구어로 대화를 할 때 조사를 빠뜨리기 쉬운데 A는 대부분 조사를 포함하여 완성된 문장을 말하였고 어휘력도 좋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변경하면 A는 변경 전 이야기를 했으며, A의 구어 속도가 다소 느려서 대화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A는 구어로 말하는 것이 수어보다 더 편함에도 심층면담 두 회기 모두 구어와 수어를 동시에 하였다. 이때 수어는 구어의 보조적인 역할이었다.

연구 참여자 B는 구어를 천천히 하였고, 현재 구어와 수어가 상호 보완관계라고 말하였으며 구어와 수어를 함께 할 때 더 편하다고 하였다. B는 연구자가 짧은 길이의 문장을 핵심 단어를 강조해서 천천히 말해주는 것을 편하게 느꼈다. 연구자가 한숨에 길게 말하면 B는 듣는 정보에 오류가 있었으며, 이때 연구자에게 수어와 구어를 함께 해달라고 하였다. 특이점은 연구 참여자 D와 마찬가지로 엄마의 음성과 억양을 모사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연구자가 구어로 대화하자고 했을 때 곧바로 몸을 연구자 쪽으로 가까이 했으며, 인공와우를 착용한 귀보다는 반대쪽 귀가 잘 들리게 고개를 돌렸다. C는 구어로 단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며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조사를 많이 빠뜨리기도 했다. C는 연구자가 문장 속 핵심 단어를 강조하고 천천히 말하면 잘 알아듣고 구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연구 참여자 D는 구어로 대화할 초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생각보다 연구자의 구어를 잘 듣고 바로 적응하여 대화하였다. 처음에는 수어와 구어를 같이 하다가 15분 정도 이후에는 가끔씩 수어가 나오기도 했지만 구어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발음과 어휘력은 A가 가장 좋았지만 연구 참여자 중 D가 구어로 가장 소통이 잘된다고 느꼈다. D는 묻는 즉시 대답을 하였고 가끔 연구자보다도 구어 속도가 빠를 때가 있어 대화 속도가 맞아 편하게 느꼈다. 하지만 연구자와 D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조용한 환경임에도 D는 연구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스’ 발음이 다소 어려워 보였으며, C와 D의 비음과 유음 발음이 연구자에게 이따금씩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 수어

집단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수어로 대화를 하였는데 감정이 섞인 말을 하거나, 상대가 이해를 못 할 때는 수어와 구어를 같이 하였다. 연구 참여자마다 수어 능력에 차이가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이 소통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 면담의 내용을 모두 막힘없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수어로 대화를 나눌 때 단 한 사람의 소외 없이 연구 참여자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어 표현 능력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A는 수어 표현과 어휘력이 부족했고, 수어 단어를 자의적으로 표현하였다(예:/발음/을 /유익/이라고 함). 연구 참여자 B도 수어 표현과 어휘력이 부족하였지만 상황 재현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하여 잘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수어를 또박또박 표현하지만 /~하면/, /때문에/ 수어를 습관처럼 자주 사용 했고 그것이 문맥에 안 맞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수어 단어를 잘못 표현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완벽한 한국 수어는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수어를 문맥에 맞게 유창하고 빠르게 구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 마다 수어 표현 능력에 차이가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 모두 공간 활용, 지시, 역할전환, 일치동사 등의 표현은 정확하게 하였다.

현재 연구 참여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구어와 수어의 능력과 편한 정도는 A는 구어70 / 수어30, B와 C는 구어40 / 수어60, D는 구어30 / 수어70 이다.

## 연구 절차 및 방법

### 연구 절차

연구에 앞서 면담 설계를 위해 2019년 1월에 연구 참여자 D와 예비면담을 하였고, 2019년 5월-6월 한 달 동안 집단면담 1회와 그 이후 연구 참여자 각각 2회씩 개인별 심층 면담을 하였다. 집단면담과 개별면담은 각각 2~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대학교 연구실, 연구 참여자의 집, 스터디 룸 등에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를 받았고, 동의서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동영상촬영에 관한 동의, 연구 진행 중 참여 의사 철회, 면담 내용의 객관적 신뢰도 검토를 위한 제3자의 동영상 열람 동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면담을 진행할 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하여 연구자 개인의 생각이나 시각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 집단 면담이 끝난 후에 바로 면담 내용을 번역하여 한글 파일로 작성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말맛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수어나 구어가 글로 썼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은 최대한 살려 그대로 작성하였지만 글로 남겨졌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연구자가 추가로 괄호 안에 설명을 적고, 한국어 문법 구조에 맞게 번역하였다. 작성한 번역본은 다음 면담 때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을 받았다. 개별면담은 다음 회기 때까지 번역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추후 SNS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검토 받은 내용은 인공와우 착용자들과 다년간 만나본 경험이 있으며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교 교육통역을 10년 이상 한 수어통역사에게 면담 영상 내용과 연구자가 작성한 번역내용이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의 말하는 스타일을 잘 표현 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심층면담 인터뷰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면담 내용 분석은 연구자가 면담 영상과 면담 번역 내용을 반복해서 보고 읽으면서 Spradley(1980)의 분류분석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면담 첫 회기에 집단면담을 하였고, 그 이후 두 회기 동안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개인별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집단면담을 첫 회기에 한 이유는 비슷한 성장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공유되어 개별면담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자의 모어인 구어가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 언어에 간섭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집단면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 까지 구어를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말 이외의 발언은 최소화하여 수어만 하였다.

집단면담에서 대화할 내용과 유의점은 연구자가 직접 수어로 설명하지 않고, 사전에 농인에게 부탁하여 찍은 영상에 자막을 삽입한 후 집단면담이 시작할 때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었다. 집단면담 내용은 크게 3종류로 구조화된 면담 질문이 아닌 대화의 범위만 정해주었다. 연구자가 집단면담 질문 내용을 계획할 때, '농문화'라는 단어로 질문을

하면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므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농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시적인 특성을 지닌 ‘수어’로 대체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와우 수술 후 상황, 언어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것, 가정생활, 학교생활은 어떠했는가? 둘째, 수어를 처음 접했을 때 상황은 어떠했는가? 셋째, 수어가 익숙해지고 난 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은 어떠한가?

이 외에도 연구 참여자가 더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떠한 형식이든지 연구 참여자 자신에게 가장 편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고지했다.

집단면담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들 중에 연구자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이나 연구 참여자들이 대화 분위기가상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심층면담을 하였다. 집단면담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심층면담 때에도 연구 참여자들이 편한 언어로 대화하도록 하였다.

## 연구 결과 및 논의

<Table 2> Overview of the result

<i>Before exposure to Deaf culture</i>	
Advantages of cochlear implant	Can communicate with parents by spoken language
	Can hear sound (music, car horn etc.)
Disadvantages of cochlear implant	Limitation of physical activity
	Uncomfortable stereotypes against perfect hearing
Speech therapy	The struggle of language therapy in childhood
	Emphasis on pronunciation and listening
	Insufficient vocabulary and grammar skills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spoken language	Difficulty to distinguishing speech sounds in multiple people talking at once and in noise
	The burden of perfect spoken language
Appearance of life	Passivity
	More accepting of other's opinions
School life	Difficulty accessing information at school
	Loss of learning motivation

<Table 2> Overview of the result (continued)

<i>After exposure to Deaf culture</i>	
Experiencing deaf culture	Experiencing deaf culture & interpreting
Sign language	Learning sign language to interact with deaf people
	Can learn sign language quickly through deaf interaction
	Conversation is free-flowing and comfortable
	A deaf's language and a language for communication with deaf people
Communication i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information is visual, participants are able to have full access and communicate.
A change of life	Increased confidence through positive deaf culture interactions
	Expressing their own thoughts and feeling
	Challenge something new
Advocating deaf rights for communication	Expression actively deaf's rights by participants educated deaf of human right
Participant's opinion on language	Limit as to use only spoken language
	Sign language is also equivalent as spoken language
	The language what participants use is depending on the situations
Parental reactions	Negative mind to deaf and deaf culture

## 연구 결과 1

### 농문화 경험 이전의 삶

#### *인공와우의 장점*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와우의 장점은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부모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 A, C, D는 부모와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그 밖의 인공와우의 장점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과 영화 효과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자동차 경적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인공와우) 좋은 점은 아주 적지만... 몇 년간 매일매일 길고긴 언어치료를 한다면 청인과 말로 대화를 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지는데... 말을 짧고 천천히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어.” (참여자 B)

“인공와우를 해서 좋은 것은 부모님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 인공와우 수술 해서 좋은 점이 있는 것도 맞아. 그런데 그에 비해서 힘든 것은 더 많아... (사람들과 구어로 대화 하기위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해...” (참여자 D)

### 인공와우의 불편함

연구 참여자들은 만8세 이전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 당시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나이였으므로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일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수술을 했다는 것에 모두 안타까워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술 후 인공와우 삽입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면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몸을 조심해야했고, 격렬한 운동에는 항상 제외되었다. 그리고 외부장치가 무거워서 불편했고, 수술 부위의 신경에 자극이 와서 머리가 아프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배터리비용과 같은 유지비용도 불편한 점이다.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 내가 원해서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불편함이 있었겠지... 부모님이 너 (몸)조심해야해. 운동하지 말거라.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하지 마라...(계속 들으니)... 화가 나는 거야." (참여자 D)

"...외부장치를 연결하면 뭔가 신경에 자극이 와서 머리가 아픈... 그 찌릿찌릿한 느낌 때문에 너무나 짜증이... 반대쪽도 하면 더 잘들을 수 있다고... 결국 엄마가... 수술하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절대로 안한다고 했어요. 인공와우 1개만으로도 힘든데..." (참여자 D)

"중1 때부터 (운동하는데) 엄마가 몸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아마 중1때 인공와우가 갑자기 고장이 난거예요. 땀이 많이 나고, 또 외부장치에 전선이 꼬였다고... 인공와우 때문에 운동(선수)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포기했어요. 위험하다고... 아깝고 안타까워요." (참여자 B)

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100%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청인들의 편견이라고 하였다.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다 들리는 것도 아니며 수술 후에 수많은 훈련을 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수백번' 연습을 통해 점점 잘 들을 수 있었다는 Chung(2017)의 연구 면담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인공와우 수술 후 재활 훈련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7,20,22]. 그리고 연구 참여자 D는 (상대의)입모양을 봐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며 대화의 흐름을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A: "(인공와우수술)100%성공은 못하지."

참여자 C: "맞아맞아."

참여자 D: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나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해."

참여자 A,C: 끄덕끄덕

참여자 D: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편견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자르고 싶어."

참여자 A: "어떤 단어를 수차례 듣는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면 그때서야 잘 듣는 거지."

### 언어치료

연구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권유로 언어치료를 받았다. 언어치료 과정은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Chung(2017)의 연구 참여자들 역시 언어치료 과정이

짜증나고, 힘들고, 지루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 언어치료 받으면 나중에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뭔가 너무 과장된 말 같기도 하지만... 계속 설득하고 달래서... 결국 언어치료를 받는데... 6년만 하고 그 이후로 너무나 귀찮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결국 중단했어.” (참여자 B)

그리고 언어치료 대부분이 ‘듣기’와 ‘단어발음’ 연습을 하여서 연구 참여자 B와 D는 어휘력과 문장력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했으며, 연구 참여자 C도 언어치료실에서 긴 문장을 가르쳐주기를 바랐다.

"(언어치료실에서)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고난 후에 (말로)대화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참여자 C)

"... 웃긴게 뭐냐면... 대부분 어휘력하고 문장력이 좀 부족... 언어치료 할 때 대부분 발음하고 듣기 연습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언어치료선생님이) 말해주는 문장은 어려운 문장이 아니고 쉬운 문장... 뭔가 유치원생이 말할법한... 다른 언어치료실을 가도 이런 방식은 똑같아..." (참여자 D)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언어치료 상황 대부분은 일대일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대화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있는 곳에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하거나 혹은 빠르게 오가는 대화에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 중에는 이러한 상황까지 감안하고 언어 치료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연구 참여자 D는 인공와우 검사에서 듣기·말하기 능력이 (청인의) 90%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40%같은 느낌이 들었다.

현재 연구 참여자 B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 모두 언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A는 청인들과 소통을 위해, C는 사회에서 구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D는 부모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생인 지금까지면 (인생) 대부분을 (언어치료를 받고 있네). 올해가 확실히 (듣기 능력이) 늘어... 그 발전 가능성이 보이니까 계속 하는 거..." (참여자 A)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여러 사람 동시 발화 및 소음 상황**

연구 참여자마다 듣고 말하기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연구 참여자 모두 조용하고 일대일 상황에서는 구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거나 소음 상황에서는 연구 참여자 모두 말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워했다.

"비 오거나 카페에서 주변에... (말소리가) 모호 할 때가 있고 잘 들을 때가 있고요. 지금 여기(조용한 곳)보다 카페에서 있고 듣는 것이 더 어려워요." (참여자 B)

“유치원 때 소외감 느꼈고...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계속요. ...다 청인이기 때문에 웃고 떠들고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그냥 미소 짓기만 해요. 그냥 사람들 표정만 보고 똑같이 따라 하기만 해요. 지금까지 계속요. 여전히...” (참여자 D)

인공와우 착용자가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지각이 어려운 점은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인공와우의 취약점이다[11,12,13].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지금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도 분위기상 미소만 지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 구어 발화 대한 부담감

연구 참여자들은 구어를 할 때 상황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며 문법에 맞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크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함에도 못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고, 상황에 맞게 말하는지 아닌지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자신이 청인보다 듣는 정보량이 적으므로 청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구어를 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참아야했으며 이런 상황이 많이 힘들었다.

“말할 때 표현하고 싶은데 문법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요... 예를들면 ‘가위로 잘랐다(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가위가 잘랐다’ 그렇게 잘못 아니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참여자 B)

“말은... 뭔가 한계가 있어요. ...고급 어휘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어렵기도 하고요. ...무식해 보일까봐 걱정이 있어요.” (참여자 D)

“...청인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는 청인과 대화하면 60%정도 대화가 되지요. 청인과 청인이 대화를 하면 100% 잘 이루어지고요. 이런 차이로 제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인과 대화를 하면 내가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리가 모호한 적도 있어요. 소통이 안 된 적도 있고요...” (참여자 C)

### 삶의 모습

#### 소극적인 생활

연구 참여자들이 학창시절을 회상하고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모두 ‘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자신감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집단면담 때 면담을 이끌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예전에 저는 소심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예를들면 예전에 수어를 누가 해 봐 라고 해야 하지 제가 먼저 나서서 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절도 못하고요...” (참여자 D)

### 수동적이며 상대에게 맞춰주는 삶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직접 찾아서 무엇인가를 하기 보다는 누군가가 말해주면 그때 반응하고 행동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를 많이 의식했다. 연구 참여자 A는 예전부터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보다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괜찮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도 자신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장애를 감추기 위해 애썼다.

“솔직히 제가... 먼저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그걸 곧이곧대로 대답하고 그러한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때 뭘 하겠다는 표현도 생기고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크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다른 상대방한테 머 상대방이 바라는 거나 (저에게) 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것대로 해 준 것도 있고. 제가 작년까지 직접 제 자신을 표현을 한 적이 없었어요. 답답한데 그게 익숙해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참여자 A)

“예전에는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 뭔가 장애를 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19살 전까지 항상 머리를 내려서 인공와우를 숨기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누가 제게 말하면 잠자코 가만히 있고요. 그냥 간단히만 말 하곤 했죠... ...왜냐하면 제가 장애가 있음을 표현하면 항상 저를 불쌍하게 봤어요. ...저는 그런 시선들이 싫었어요.” (참여자 D)

### 학교 생활

연구 참여자 대부분 초·중·고 시절 교내에서 청각장애인은 자신 혼자였으며 다른 청각장애인이거나 농인을 본 적이 없었다. 연구 참여자 B는 고등학교 특수반에 농학생이 있었고 같은 장애가 있지만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저는 혼자만 있는 상황. 다른 장애인들은 같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나는 나랑 똑같은 장애인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이상했어요.” (참여자 D)

### 정보 접근의 어려움

학교에는 연구 참여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급 수업시간에 교사가 구어로 수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20~40%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수업자료와 같은 시각적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0%가 전부였고 수업내용을 듣고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연구 참여자가 앞자리에 앉아도 교사가 책으로 입을 가리거나 교실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교사가 빠르거나 많은 내용을 말하거나 불분명하게 말할 때, 다수의 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답할 때, 소란스러운 쉬는 시간 등의 상황에서 인공와우를 착용하여도 듣기가 어렵다는 Preisler et al.(200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로 수업을 하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친구에게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물어봐서 알려주면 그때서야 알게 됐지.” (참여자 C)

“나 초등학교 때... 공부에 게으르고 수업시간에 책도 펴지 않고... 수업태도도 불량했어... 문제는 국어책을... 내가 책을 읽으면 선생님이 너 발음이 왜 그래 똑바로 읽어봐 그러시는 거야. 그럼 나는 참 억울하지. ...너 이리 나와 라고 하셔서 손바닥을 2~3대를 때리시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 때 화를 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네.” (참여자 B)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시간에 듣지 못한 정보는 옆에 앉은 친구에게 물어서 알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어시간에 책을 읽는 것과, 음악시간에 악기 연주나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이나 박자가 맞지 않아서 혼란 것에 매우 공감하였다.

교우관계도 연구 참여자 A는 고등학교 때는 수업시간에 어려운 말하는 친구도 많고 친구들하고 공감이 줄어든 느낌이어서 혼자서 많이 외로웠으며, C는 자신이 안 들리기 때문에 친구들이 뒤에서 험담을 하면 불안하다고 하였는데 이점에 대해 A도 공감을 하였다. D는 고등학교 때는 청인학생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다른 장애학생들과 어울렸다. 이는 Dammeyer et al.(2018)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 중 55.4%가 자신은 또래친구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 학습 의욕 상실

연구 참여자 모두 수업 시간에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학습에 의욕이 전혀 없었다.

“고등학교 때 뒷자리) 그땐 자유로워졌죠. 그럼 눈치 안보고 잘 수 있고. (잘 안들려도) 괜 찮아요. 수업 어차피 머 공부를 해봐야 잘 하는게 없고.” (참여자 A)

“학교생활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의자에만 앉아서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수반은) 교육수준이 낮아서요. 제가 더 바보가 될까봐 아예 안 들어갔어요.”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D는 초·중·고등학교 때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두 곳에서 공부를 하였다. D는 중학생 때 일반학급에서 교사가 구어로 수업을 하여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특수학급은 D의 학업 수준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들었다. D가 고2 때 일반학급에서 학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학급에 갔지만, 특수학급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인 두 자리수 덧셈을 하였다. D는 특수학급 교사에게 건의를 하여 중학생 수준의 교재를 구입하였으나, D를 위한 별도의 교육은 없었고 혼자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연구 참여자 D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은 농인을 위한 교육이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A도 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농인을 위한 교육이 없다는 것에 ‘억울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이런 상황은 인공와우 착용자가 일반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Chung(2017)의 연구 참여자의 상황과 일치하였다.

“(중학생 때) 중요한 것이 있어 부르면 (특수학급에)가서 듣고 나머지는 일반학급에서 공부했어. 농인을 위한 교육은 없고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많은 것 같아. (일반학급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수업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것이 많아. (농인을 위한 교육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 (참여자 D)

## 연구 결과 2

### 농문화 경험 이후의 삶

#### 농인과 농문화

##### 농문화를 접함

연구 참여자들은 W대학교에 입학한 후 농문화를 접하고 농문화를 알아갔다. 연구 참여자 모두 청인 문화에서 성장하여서 농인 문화가 낯설고 모르는 점도 많았다. 하지만 농문화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더 배우고 싶었다.

“(대학교에) 농인 몇몇이 있는데 재밌어 보였어요. 부럽다... 혹시 누군가가 같이 가보자고 하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농학생회... 개강파티 때 한번 참석해봤어요. 혼자서 간 게 아니라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농인 선배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갈죠...” (참여자 C)

“(농인단체 임원) 농인들 보고 아 이렇게... 일하면서 지식이 늘려지는 구나.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다. 뭔가 정보 공유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자 B)

“...21년 동안 내가 청각장애인인줄만 알았는데 대학교에 입학해서 농인의 의미를 알려줘서 처음 배울 때... 신기한게 많았고... 예전에 청인문화를 좀 알긴 했는데 대학교에 가서 (제가) 농인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했어요... (농문화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C)

##### 수어통역 · 문자통역

연구 참여자들은 W대학교에 입학하여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의시간에 수어 · 문자 통역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 A와 C는 문자통역을 주로 받고, B와 D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강의시간에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80~100%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역을 통해 예전에 듣지 못했던 교수님의 유머를 보고 청인 학생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문자통역 수어통역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청인 문화만 알고 있었어요. ‘농문화가 있구나.’ 깨달은 후에 문자통역이 있고 수어통역이 있구나... 그런걸 알게 됐어요. 후회스럽죠.” (참여자 B)

“(문자통역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 (수업정보를) 20%정도 밖에 못 받아서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에서 문자통역지원을 받아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고 집중도 잘되고 90%정도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 수어

연구 참여자들은 교내외에서 농문화를 경험하였고 농문화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배워야 함을 느꼈다.

“처음 수어를 봤을 때... 매력이 있었고요.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어를 하면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참여자 C)

### 수어 학습 동기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농인과 어울리고 싶어서 수어를 배웠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C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많은 농인들을 보았고 농인들과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수어를 배웠고, A도 농학생회에서 모두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소외감을 느꼈으며 농학생들과 친해지고자 수어를 배웠다. 연구 참여자 B와 D는 농인과의 교제와 전공교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어를 배우게 되었다.

“...OT때 누가 앞에서 서서 수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신기하다 했어... 그 이후 농학생회 친목 모임 때 사람들이 수어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말(구어)만했지. (수어의) ㅏ, ㅑ, ㅓ, ㅕ 도 몰랐어. ...그 공간에서 나는 좀 소외된 느낌이었어. 나도 친구가 되고 싶은데 나도 수어를 배워볼까 생각을 했지. ...인터넷으로... 수어 단어들을 배웠어. 그리고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농인하고 대화하면서 수어를 배우게 됐지.” (참여자 A)

### 수어 학습

연구 참여자들은 구어에 비하여 빠르게 수어를 학습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수어 학습에 대하여 말할 때 “하도 수어를 눈으로 본 게 있어가지고요.”라고 하였다. 수어는 시각언어이므로 A의 눈에 수어가 많이 노출이 되었고, A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다. 연구 참여자 C도 수어를 하면 얼굴표정이나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B는 정규교육을 통해 수어를 배우는 것보다 농인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어를 익히는 것이 수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학과 특성상 수어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 참여자도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 모두 농인들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수어를 배웠다.

“(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좀 모호한게 있어요. 그런데 농인이 수어를 하면 들을 필요 없이 눈으로만 보면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수어를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C)

“농인과 대화하면서 그 수어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수어를 익혔고 점차 수어(실력)가 늘더라고 그러면서 수어가 신기하고 재밌음을 깨달았어...” (참여자 B)

### 수어가 편해짐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수어를 사용한지 2년 이상이 되어 수어와 구어가 모두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D는 수어가 구어보다 더 편하다고 하였으며 수어를 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서 술술 나온다고 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24년 동안 말을 해왔고 수어를 시작한지는 4-5년 정도 됐어. 그래서 난 둘 다 편해. 그런데 지금은 말보다 수어가 더 편해.” (참여자 D)

“나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구화로 성장했고, 대학교 입학 후 2년간 수어를 했어.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고 (수어, 말) 둘 다 괜찮아. 둘 다 편해. 편해.” (참여자 C)

그러나 현재 연구 참여자들은 수어와 구어 모두를 잘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수어와 구어를 연습해야한다고 하는 데에 연구 참여자 모두 공감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 A는 청인이 영어나 일본어 공부를 하면 한국어가 잘 안 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난 그게 힘들어. 뭐냐면 내가 수어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수어 연습.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 그럼 말 연습해야 하잖아.” (참여자 A)

“(수어랑 구어) 둘 다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농민들과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수어에 대해서 공부해야하고 청인들과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언어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고. 다 필요해.” (참여자 D)

### 수어에 대한 생각

연구 참여자들은 수어는 농민의 언어이며, 농민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고 특히 연구 참여자 D는 수어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B와 C는 현재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기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수어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고, 연구 참여자 A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수어는 영어와 일본어처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라고 말하였다.

“수어를 하면... 나를 발견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말을 하면 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 자신 'D'라고 여실히 느끼기 어려워요. 뭔가 제 성격을 어느 정도 숨기고 있는 느낌이랄까...”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수어를 배운 이후 2~3년간 자신이 구화인과 농민 중 누구인지 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D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결국 자신은 ‘나, D’였으며, 정체성을 꼭 어느 하나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수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게 되어 수어는 ‘행복’과 ‘정체성’이라는 자신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수어는... 첫 번째는 ‘행복’이고 두 번째는 ‘정체성’. ...내가 수어를 배우기 전 청인 사회에 살 때 너무나 우울했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어렵고 결국 내 자신이 사라진 느낌? 그런데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두 번째는 내 정체성은 ‘D,나’라고 생각해. 수어를 배우기 전에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 어려웠어. 항상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감정으로 살았지... 그런데 수어를 배운 후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좋아하는 감정 뭐 모두 다 표현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누구이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참여자 D)

### **수어로 의사소통**

수어는 시각언어이므로 수어로 대화를 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눈으로 상대의 감정과 대화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구어로 대화를 할 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인과 수어로 대화 할 때는 대화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수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화 상대와 대등하게 됨으로써 연구 참여자 D는 수어를 배운 후 본인이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아닌 서로가 같이 맞춰야함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D는 청인과 수어 없이 구어로만 대화할 때면 지금도 여전히 소심해진다.

“말과 수어의 상황이 달라요. 말을 하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수어를 하면 상대의 모습을 보면 다 상황에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상황에 다 딱 맞는구나. (알 수 있어서) 수어로 표현하면 좋아요.” (참여자 C)

“수어로 하면 뭐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서로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청인 같은 경우 대화할 때 대화가 안통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정보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수어로 정보를 받는 것이)가 나아요.” (참여자 B)

“(수어로) 제 스스로 하고 싶은 말 표현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하면 자신이 없고 뭔가 억눌리고 움츠려들고 소심해지고 해요. 말은 뭔가 어려워요. ... 근데 수어는 수어로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알아서 해야 할 말들이 정리가 돼서 술술 나와요.” (참여자 D)

### **삶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농인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등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들이 있었다.

### **사과의 전환**

연구 참여자 C는 농인들을 만난 이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얼굴 표정도 밝게 변하였는데 이는 농인들이 C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었다. 연구 참여자 D는 구어로만 살았을 때는 상대에게 무조건 맞추려고만 하였으며, 인공와우를 가리기에 바빴다.

하지만 농문화를 경험하고 수어를 배운 이후에는 당당해졌으며 그렇게 행동하자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졌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의 모습 그 대로를 받아들였으며, 인공와우를 ‘부모님을 위한 내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제가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서로가 맞춰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머리를 귀 뒤로 넘겨서 귀에 꽂아요.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저 장애가 있어요.” 확실히 당당하게 말해요. 그럼 상대가 “어, 말 잘하네~” 하면 “말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수어를 할 수 있어요.”라고 해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자신감 당당함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장애가 있다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하고요. ...뭔가 시야(생각의 범위)가 넓어진 느낌이에요...” (참여자 D)

“예전에는 거울 보지도 않았어요. (연구자: 지금은 웃고 있고, 여유 있는 모습이야) 웃음 끄덕끄덕.” (참여자 C)

###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

연구 참여자들은 구어로 살았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소심’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A는 농인 친구가 이런 저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통해 해방감을 느꼈다. 연구 참여자 C는 농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농인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고 현재는 소심함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 연구 참여자 B는 자신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확실히 이게 (제 자신을 표현하니까) 더 편한 거예요. ...혼자만의 세상에서 갇혀 사는 것보다 해방된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답답한데 그게 익숙해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참여자 A)

### 새로운 것에 도전

연구 참여자들은 구어로 성장했을 때 소심했고 누군가가 말을 해야지 그때서 결정하고 행동했다. 그러나 농문화를 경험한 이후 연구 참여자 C는 스스로 공모전에 도전을 하였고, 연구 참여자 A와 B는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운동 종목의 농인팀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연구 참여자 D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농인 단체의 중책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다.

현재도 연구 참여자 모두 학교 내외에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도전하면서 지내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 계속 조용히 있었고 지금 대학교 와서 농인을 보고... 마음을 바꾸자 생각했고 변했어요. 농인을 만나면 재미있고 어울려서 (제가) 변하게 됐어요. 대학교 와서 새로 배운 것도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도 많이 하고요. ...학교에 (공모전)포스터 공고를 보고 (농인)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같이 해도 괜찮다고 했고... 올해는 두 번째예요.” (참여자 C)

### 농인의 권리 표현

연구 참여자들은 집단면담에서 ‘청인의 농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농인의 권리 표현’이라는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대화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회사에서 청인들과 구어로 회의를 하는 가상의 장면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농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의 권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회의에서 구어로 대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0-20%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대답은 농인권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B와 D는 강의를 통해 농인권에 관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연구 참여자 A와 C는 농인권에 대하여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연구 참여자 B와 D는 연구자의 질문을 들었을 때 현재 사회의 농인식 상황과 회사의 제정 상황을 잠시 고민하기는 하였지만 당당하게 속기사나 수어통역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였다. 통역 제공이 안 될 시에는 연구 참여자 D는 회사 측에 끈질기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연구 참여자 B는 수어통역은 내 권리이며 통역 미제공은 인권 침해이므로 인권위원회에 신고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가 현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학과 수업 중에 농인권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연구 참여자 A는 회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0%임에도 혼자서 알아서 잘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연구 참여자 C는 속기사를 부르면 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회사 상황과 속기사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여 앞으로 농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속기사를 부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19살 그대로 청인문화에서 자랐다면 회의 상황에서도 뭔가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옆 사람에게 물어봤을까?... 아마 회의할 때 자료를 쫓을 거예요. 그냥 회의 자료 읽고 알아서 했겠죠.” (참여자 D)

“청인 사회에서 문자 통역이나 말을 하면 문자로 바꿀 수 있는 앱이... 지금은 보편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제 입장은 상관없이... 청인 사회에 청인처럼 생활하고 알아서 생활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책임을 가져야겠죠.” (참여자 A)

“회의 때 결정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청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C)

### 언어에 대한 생각

현재 연구 참여자들은 수어와 구어 모두가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A는 수어도 언어로 써 구어와 동등하며 상황에 맞춰 수어나 구어로 소통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것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모두 동의하였다. 이는 수어와 구어가 가능한 인공와우 착용자가 대화 상대·주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의사소통 방식을 바꿔 대화하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였다[14,15,30].

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와우 수술과 언어치료를 받게 한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으며 구어가 가능하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로

구어 한 가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말만 교육을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농인과 수어 교육만 받아본 적은 없어서 그것만 배웠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만 교육을 받아본 결과 말만 교육을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참여자 C)

“(말보다 먼저) 수어 배웠으면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똑똑해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7세) 소통이 아예 안돼서 똑똑하지 않았고... 그냥 수어가 언어나까 어릴 때부터 말 연습하고 수어도 같이 하면 저는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친해지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수어와 말을 이렇게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다...” (참여자 B)

“(구화인들에게) 수어에 대해서 소개시켜줘야죠. 왜냐하면 청인 사회 문화가 익숙하지 못하겠으면... 농인 사회의 문화를 어울리고 놀았으면 ...수어를 배워서 수어로 소통해서 서로 장난도 치고... 그제 더 소통이 되고 친해질 과정도 생기고 그래야 좋았을 것 같은데...” (참여자 A)

일반적으로 인공와우 착용자라고 하면 구어로 말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구어뿐만 아니라 수어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Marschark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인공와우 착용자 중 40% 가량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장 좋은 언어는 ‘수어’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와우 착용자가 구어와 수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Dammeyer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청인과 함께 교류하는 것은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 일이며 덴마크 수어를 더 알기를 희망하고, 연구 참여자의 41.5%는 수어를 더 배우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Hyde&Punch(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인공와우를 수술한 주된 목적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연구에 참여한 부모 중 70%는 자녀의 구어 발달 및 자녀의 사회적 참여와 농정체성을 위해서는 수지영어나 호주수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 부모의 반응

연구 참여자가 농문화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 부모에게 말했을 때, 연구 참여자 부모 모두가 농인과 수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농인보다는 청인과 어울리기 바랐다. 이는 인공와우 수술을 한 자녀를 둔 청인 부모일 경우 구어만이 가치 있는 언어라고 인식하고 수어와 농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Kim&Kwon(201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저는 농인 문화에 대해 깨닫고 엄마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엄마가 방어를 하세요. 수어에 대해 관심이 없고 청인으로 자랐고 청인으로 살면 충분하다고...(농문화에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심해요...” (참여자 B)

“부모님께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껏 듣는 연습, 말 연습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반대로 부모님이 저를 위해 수어를 배울 생각은 없으신가요?”라고 물었어요. ... 부모님이 “예전엔 (수어를 배울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으니 수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나 쉽게 말을 해서요. ...(머리가 멍하고 멍해져서) “그렇구나, 알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날 위해 수어를 한번만 배워 봐요. ...취미든지 기초반을 배우든지 뭐든 한번만 짧게라도 배워 봐요...” ...왜냐하면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대부분 선생님이 ‘농문화’를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배우신다면 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좀 눈을 뜨시지 않으실까 해서요. ...제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의미로요.” (참여자 D)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청인 문화에서 구어로 성장한 20대 초반 성인의 농문화 경험 전·후의 삶에 대하여 심층면담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만2~7세 때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지속적으로 언어치료를 한 결과 현재는 들을 수 있고 구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용하며 일대일 대화 상황과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소음이 많고 다수의 사람들의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었다. 성장기 동안 연구 참여자는 청인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언어치료를 받았지만, 청인 사회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소통을 위한 환경 및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소극적인 삶을 살았다.

성인이 된 연구 참여자는 농문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농인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농인들과 어울리며 수어를 배웠다. 시각언어인 수어는 구어보다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고 수어를 사용한지 2년 이상이 된 현재는 수지 한국어나 수어로 대화하는 것이 편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어로 농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를 통해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었으며 관심 분야의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권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농인권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농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연구 참여자는 청인들과 회의를 하는 가상의 회의 장면에서 농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에 농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음에도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권리를 표현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론을 요약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인공와우 착용으로 들을 수 있고 구어가 가능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로 구어 한 가지만은 한계가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가 농인 공동체에서 농인과의 교류를 한 결과 심리·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농인권 교육을 받은 연구 참여자는 농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연구 참여자들이 수어와 농문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농인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환경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개인적 요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청인사회에 다시 통합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추후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구어로 생활할 때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수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미비하므로 인공와우 착용자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적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행 연구 대부분이 학부모나 교사, 농학교에 재학하는 인공와우 착용 당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농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청인 정체성을 가지며 청인 문화에서 살아가는 인공와우 착용자 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Reference

- [1] Min, B., Yang, H., & Gi, Y. et al.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teacher's guidebook for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Gyeonggi-do: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2] Spencer, P. E.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performance after cochlear implantation at one to three years of age: child, family, and linguistic factor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9(4), 395-412.
- [3] Noh, S., Kang, Y., & Geum, M. et al. (2011). *A Nation-wide Survey on Special Education*. Chungcheongnam-do: Korea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4] Yoon, J., Kwon, M., & Kim, R. et al. (2017). *A Nation-wide Survey on Special Education*. Chungcheongnam-do: Korea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5] Ministry Of Education. (2017). *2017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6] Ministry Of Education. (2018). *2018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7] Kim, S. (2015). The qualitative research on hearing impaired school teacher's perception toward hearing impaired student with cochlear implant.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6(2), 59-79.
- [8] Yoon, H. (2009). A case study on self-esteem of the hearing impaired adolescents with cochlear implant. a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9] Heo, M., Kim, M., & Byun, E. et al. (2016).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social competence after cochlear implantation for hearing impaired children.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a spring conference, 2016(6)*, 187-195.
- [10] Lee, S., Jung, S. & Tark, P. et al. (2018).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in prelingually deafened adults with cochlear implant.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3(2), 528-538.

- [11] Lee, J. (2016). A Study on the Satisfaction in Auditory Performance of Cochlear Implant Users. A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12] Heo, M., & Ahn, S. (2011). Analysis of the language abilities for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in mainstream schools and language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3*(1), 219-242.
- [13] Jang, H., Yoon, G., & Ryu, H. (2016). Auditory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with cochlear implants in mainstream setting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2), 167-186.
- [14] Wheeler, A., Archbold, S., & Gregory, S. et al. (2007). Cochlear implants: The young People's Perspectiv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2*(3), 303-316.
- [15] Hyde, M., & Punch, R. (2011). The modes of communication used by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and the role of sign in their liv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56*(5), 535-549.
- [16] Mitchiner, J. C. (2015). Deaf parents of cochlear-implanted children: beliefs on bimodal bilingualism.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20*(1), 51-66.
- [17] Napoli, D. J., Mellon, N. K., & Niparko, J. K. et al. (2015). Should all deaf children learn sign language?. *Pediatrics, 136*(1), 170-176.
- [18] Dammeyer, J., Chapman, M., & Marschark, M. (2018). Experience of hearing loss, communication, soci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with cochlear implant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63*(4), 424-439.
- [19] Park, E. & Jeong, E. (2011). Analyzing research trends on cochlear implant in scholarly articles of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3*(1), 21-43.
- [20] Kwak, J. (2010). A qualitative research on parents' choice to cochlear impla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1*(2), 251-279.
- [21] Park, G. (2004). A study on parent attitudes on hearing-impaire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5*(2), 93-114.
- [22] Kim, T., & Kwon, S. (2019). The rearing experiences and awareness about to education of mothers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20*(2), 243-273.
- [23] Kang, T. (2016). The qualitative research on identity and teaching sign language for students with cochlear implant : viewpoint with teachers of school for the hearing impairment. A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24] Lee, H., & Kim, B. (2003). A case study of maternal foster experience which belongs to the mother whose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use cochlear impla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4*(4), 205-220.
- [25] Chung, E. (2017). Disability identity development of D/deaf emerging adults who received cochlear Implants in childhood: A biographical Approach. 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26] Lee, H., & Seo, J. (2019). Educational life history of a hearing impaired student with a cochlear impla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Inquiry, Spring Conference Booklet*, 203-207.
- [27] Korean Sign Language Act. (2016). Act No.13978.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8] Kim, C. & Yoon, B. (2014). *Introduction to Deaf culture*. Daegu: junglimsa.
- [29] Spradley, J. P. (2009). *Participant Observa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translated by Shin, J.). Seoul: Sigma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0).
- [30] Preisler, G., Tvingstedt, A., & Ahlstrom, M. (2005). Interviews with deaf children about their experiences using cochlear implant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50(3), 260-267.
- [31] Marschark, M., Zettler, I., & Dammerlyer, J. (2017).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language orientation, and deaf identity.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22(3), 269-277.